

KIA '부상 악몽'... 나성범 올 개막전도 못 뚫는다



햄스트링 부상...2주 후 재검진까지 복귀 시점 판단 어려워
이범호 감독 "시즌 초반 마운드 힘 믿고 지키는 야구 할 것"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에게 '나성범 공백 지우기'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KIA에 약재가 발생했다. '주장'이자 타격의 핵심인 나성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다.

나성범은 지난 17일 KT와의 시범경기 홈 경기에서 3회말 주루플레이 도중 우측 허벅지에 불편함을 느껴 교체됐다. 그리고 18일 전남대병원에서 MRI 검진을 한 결과 햄스트링 부분손상 진단을 받았다. 정확한 복귀 시점은 2주 후 재검진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큰 부상 없이 잘 흘러왔던 KIA의 시즌 준비 과정에 돌발변수가 등장하면서 이 감독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감독은 19일 "조심한다고 해서 안 다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행히 생각보다는 큰 부상은 아니라서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4월 말이나 5월에는 팀에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나성범의 부상을 이야기했다.

공수에서 핵심 선수가 빠지면서 '플랜B'로 개막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감독은 "준비를 잘한 외야수들이 많아서 성범이 올 때까지 잘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선수들 믿고 같이 준비하겠다. 잘 버텨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상으로 성범이 빠졌다고 해서 팀이 침체되면 안 된다. 김호령, 이장진, 최원준, 소크라테스 이런 선수들이 잘 준비해준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시즌 초반 마운드의 힘을 믿고 '지키는 야구'로 가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실점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폭넓게 전력을 운영해 승리를 지키겠다는 구상. 초반 흐름에 이우성과 서건창 그리고 김호령이 주목할 카드가 될 전망이다. 이우성은 지난 마무리캠프를 시작으로 1루수 변신을 준비했고, 연습경기와 시범경기를 통해 순조롭게 1루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 17일 발목 통증으로 경기 도중 교체됐고, 병원 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 개막전 투입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몸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황대인이 뜨거운 타격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어 이우성은 내외야를 오가면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건창도 상황에 따라서는 1루에 역할을 하게 할 생각이다. 시범경기에서도 이 감독은 서건창을 1루에 투입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김호령은 수비에서는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실력자다. 마운드와 함께 상대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에

서는 김호령의 수비 가치가 커진다.

전체적인 타격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은 반갑다.

이 감독은 "컨디션을 시즌에 맞춰 준비했고,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본 무대에 맞춰 타격이 잘 준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운드 준비도 순조롭다. 장염으로 18일 삼성전에서 시범경기 첫 등판이자 마지막 등판을 했던 양현종의 컨디션도 좋다.

이 감독은 "자기가 맞춰서 잘 준비하는 선수다. 등판 끝나고 피로도 더했고, 스피드도 그렇고 준비하는 것에 이상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날 양현종을 상대했던 '옛 동료' 삼성 류지혁도 "컨트롤도 좋고 체인지업도 그렇고 예상지 못하게 공도 오고,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18일 LA다저스와의 서울시리즈에 등판했던 이의리의 시즌 준비도 문제없다.

이 감독은 "캠프 때부터 가장 준비 잘 된 선수가 이의리다. 가장 빠르게 투구수를 올렸다. 한 번 더 던져도 되고, 개수를 잘 올려놨기 때문에 안 던지고 준비를 해도 된다. 본인 의지에 따라서 정하겠"고 말했다.

운영철은 퓨처스리그에서 한 차례 더 실점을 소화할 예정이다. 운영철은 개막전 마지막 등판에서는 직접 불배합도 하면서 경기 운영을 해볼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대인 잘 뚫는다...3경기 연속 홈런

삼성과 시범경기 3점포...KIA, 박민 등 홈런 3개 힘입어 9-3 승

웨이트의 힘을 깨달은 KIA 타이거즈 황대인이 자신을 믿고 직진한다.

KIA가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2024 시범경기 10차전에서 9-3 승리를 거뒀다. 시범경기 최종전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KIA는 박민의 투런포 등 3개의 홈런 포함 장단 16 안타로 대승을 완성했다.

특히 황대인은 3경기 연속 손맛을 보는 등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갔다.

KIA가 유격수 김규성의 연속 실책 등으로 1회부터 3실점을 했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바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투타자로 나선 박정우의 좌전안타 뒤 박민이 삼성 선발 백정현의 3구째 슬라이더(125km)를 좌중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2-3으로 추격을 했다. 이어 김선빈이 중전안타로 분위기를 살렸다. 폭투로 2루까지 간 김선빈은 황대인의 유격수 땅볼 때 3루로 이동한 뒤 이장진의 우중간 2루타로 홈을 밟아 3-3을 만들었다.

2회에는 김규성과 박정우의 연속 안타를 시작으로 김선빈과 황대인도 연달아 안타를 더하면서 5-3을 만들었다.

잠정했던 타선이 6회 다시 움직였다.

박정우와 박민의 안타로 만들어진 2사 1-2루에서 황대인이 삼성의 4번째 투수 이승현을 상대했다. 그리고 7구째 풀카운트 승부 끝에 144km의 직구를 받아 중앙 담장을 넘기면서 시범경기 4호포를

장식했다. 3경기 연속 홈런이기도 하다.

황대인은 지난 17일 KT 김민수의 슬라이더를 좌중간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슬라이더를 장식했다. 18일에는 삼성의 새 외국인 투수 데니 레예스의 투심을 공략해 솔로포를 기록했다.

KIA의 홈런은 8-3으로 앞선 7회에도 나왔다. 이번에는 김석환이 선두타자로 나와 이승현의 3구째 슬라이더를 공략해 우중간 솔로포를 기록했다.

제임스 네일을 시작으로-황동하-곽도규-장현식-전상현을 가동한 KIA는 1회 이후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키면서 9-3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황대인은 '부상 고민'에 빠진 KIA에 희망이 되고 있다.

KIA는 개막을 앞두고 '거포' 나성범의 부상 악재를 만났다. 1루 선전에 나선 이우성은 발목 부상으로 컨디션 조율이 필요한 상황. 황대인은 공수에서 나성범과 이우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만큼 시범경기 페이스 그대로 간다면 KIA의 초반 순위 싸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입단 후 처음 퓨처스리그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렀던 황대인은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황대인은 "손가락(퓨처스) 감독님이 100%를 강조하신다. 안 할 수가 없다. 나한테 맞는 훈련이 많았던 것 같다. 일지도 쓰고 하면서 좋았을 때 모습을 생각하고, 변화를 줬다. 안 좋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2022시즌 91타점을 수확했던 황대인은 퓨처스

스 캠프에서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감도 채웠다.

황대인은 "90타점 넘게 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최희섭 코치님이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셨다. '좋았던 게 있는데 왜 자꾸 폼을 바꾸냐. 돌아가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됐다. 자기 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마음 갖지 않은 결과에 황대인은 수시로 타격폼을 바꿨다. 올해는 '믿음'으로 폼을 유지하면서 긴 시즌을 풀이할 생각이다.

'웨이트'의 힘도 더해졌다.

황대인은 "타구 스피드가 많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 예전에는 잡힐 타구가 내야를 뚫고 나가기도 한다. 그런 게 많이 좋아진 것 같다"며 "웨이트를 하면서 힘이 붙는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솔직히 웨이트를 재미없어 했는데 해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지금도 형들이 놀랄 정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위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함은 있다. 시범경기에서 페이스가 너무 좋아서 걱정도 되지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팀 분위기가 정말 좋다"며 "(이범호)감독님과 선수 생활도 같이 하고 코치님으로 같이 했는데 선수들을 형처럼 편하게 대해준다. 선수들이 편하게 야구하고, 눈치 안 보고 그러면서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오늘 경기를 봐도 어린 선수들 다 웃으면서 잘한다.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아졌다. 모든 선수가 생각하는 게 우승이다. 분위기 정말 좋다. 우승을 노리고 있는 만큼 나도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



KIA 타이거즈의 나성범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초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시즌 시작과 함께 이범호 감독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태국전 압도적 승리 '이'·'손'에 맡겨주오

내일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C조 3차전...이강인·손흥민 '속죄의 연습' 도전

한국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 최강 태국을 상대로 '속죄의 연습'에 도전한다.

황선홍(사진) 임시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3차전을 치른다.

이어 22일 태국으로 출국해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후 9시 30분 방콕의 라자망칼라 스타디움에서 4차전을 벌인다.

앞서 싱가포르와 중국에 연승한 한국은 2위 태국에 승점 3 앞선 선두(승점 6)에 있다.

조 2위까지 3차 예선에 오르는 가운데, 한국은 태국에 2연승 하면 사실상 다음 단계 진출을 확정 지

게 돼 더욱 부담 없이 5, 6차전을 준비할 수 있다.

다만, 그저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득점과 함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

지난달 끝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졸전 끝에 4강에서 탈락한 대표팀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주장 손흥민(토트넘)에게 대거리를 한 '탁구 게임'이, 일부 선수들이 대한축구협회 직권과 돈을 끌고 카드놀이를 한 '카드게임' 등 거듭된 사건과 추문에 이미지가 땅 밑까지 떨어졌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은 탁구게임으로 결정을 맞고 대표팀 사령탑에서 경질됐고, 본업이 23세 이하(U-23) 대표팀 사령탑인 황 감독이 일단 태국전에 한해 임시로 A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치르는 태국전 승리는 '속죄'의 전제조건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화해한 이강인과 손흥민이 삼삼오오의 만원 관중 앞에서 '합작곡'을 넣는다면 얼어붙은 팬들의 마음은 더 빠르게 풀릴 수도 있다.

반대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79계단이나 낮은 태국(101위)을 상대로 시원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여론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한국은 태국과 역대 전적에서 30승 7무 8패로 크게 앞선다.

2000년대 이후로는 맞대결한 적이 거의 없다. 2016년 태국 방콕에서 치른 평가전이 유일인데, 당시 한국이 1-0으로 승리했다.

객관적인 전력 차가 크지만, 태국이 상승세를 탔더라도 쉽게 봐서는 곤란해질 수도 있다.

동남아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꼽히는 태국은 지난해 일본 출신의 이시이 마사타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16강에 오르는 호성적을 냈고, 이에 힘입어 FIFA 랭킹을 12계단이나 끌어 올렸다.

일본 J리그 공격수 수파콕 사라차(콘사도레 샷포로), 스트라이커 수파차이 차이디드, 벨기에 루벤에서 뛰는 수파낫 무에안타 등 '수파 트리오'를 중심으로 펼치는 역습이 날카롭다.

스웨덴 출신의 혼혈 장신 센터백 엘리아스 돌라(발리 유나이티드)를 앞세운 세트피스 공격도 매섭다. 과거와 달리 '높이'에서 한국이 확연한 우위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황선홍호'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빗장을 굳게 잠근 채 태국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